

창의의 70년대를 향하여

대한 간호협회 부회장 전 산 초

금년 총회의 주제를 정할 때 우리는 이 해를 발전하는 창의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창의의 70년대”라고 하였다. 이제 1970년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으나 앞으로 9년 동안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제 밑에 지난 해 우리들이 남긴 발자취를 되돌아 볼 때 진정으로 총력을 기울여 합심하여 걸어 온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놀랄만한 사실, 벽찬 기쁨, 가슴 저리는 분노, 여러가지 사건들이 꿰뚫어질 지나간다.

지난 달 6,000여명 우리 회원들의 숙원이던 “우리집”이 “대한간호협회 회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아담한 6층 건물로 준공되어 낙성식과 바자회를 가졌고, 이것은 요사이 혼란 의국원조나 차관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얼마의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 회원들의 피나는 성금으로 이룩된 결정체인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귀하게 여겨진다.

또한 우리나라에 간호대학 과정이 발족되어 간호학이 독립되고 전문직업으로서 다른 학문, 다른 전문직업과 어깨를 겨누면서 부터는 하나의 과제로서 연구의 더전을 마련하고자 소망해 왔었다. 이것이 금년을 기해 발기 총회를 거쳐 대한간호학회로 간호협회 산하에 탄생된 것이다. 벌써 2회의 학술발표회를 가졌고(발기총회 제2부·강연 및 연구 발표합) 머지 않아 학회지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제2회 전국 간호대학 교수협의회회의 모인은 간호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간호교육과 가족계획 세미나, 보건간호 지도자 세미나, 임상 및 보건분야 감동기능에 관한 세미나 및 전국간호교육자 세미나 등, 각종 세미나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상황을 이루었고 한편 회원들의 유일한 기관지인 대한 간호를 통해 많은 좋은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또한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많은 석학이 배출되었다. 또한 특기한 사건으로써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법률적으로 간호의 기능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던 주사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발생 큰 요인이었던 부산지부 회원은 물론 전국회원, 특별위원 및 일반사회의 일치단결한 후원과 노력 및 정당한 주장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된 가슴 벅찬 기쁜 사실이며 또 중앙의료원과 서울대학병원 간호원의 파업으로 인해 우리 간호계는 물론 일반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었

으나 당국측의 용납과 간호협회의 지혜로운 도움으로 해풍의 파도를 넘어서게 된 사실 등을 우리들은 직접 당면하여 보고, 대한 간호지에 보고를 통해 읽고 또 여러 매스컴의 협력으로 잘 보도된 바 있어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사건 등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간호사업의 문제들을 규명 분석하고 정당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와 시행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 중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사업이 이 땅에 썩 뿌려져서 6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한 없이 많은 고난과 피로움을 감수하며 특특히 일만 해 왔다. 남이야 그 노고를 알아주든 말든 관여함 없이 그저 각자 어깨에 지어진 간호사업의 명예를 쓰고 가야할 길을 걸어왔을 뿐이다.

아무런 불평도 분노도 교만도 방황할도 없이 초연한 모습 그대로의 마음씨로 일 해 온 것은 단지 인간을 위해 돕는 길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귀중한 사실들이 뿌리가 되어 오늘날 우리 앞에 이와 같은 결실의 결과가 견제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일이다.

이제 이 회관이 건립되고 학회가 발족된 뜻도 앞으로 더욱 우리들의 활동을 활발히 하므로 보다는, 좋은 간호와 간호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활동할 터전을 마련한 것이 문제 속에 헤매이는 인간을 돕는 일에 계속적으로 공헌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다.

언제나 자가평가를 하는 것은 발전의 시발점이며 발전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 하겠다. 금년동안 우리는 난관도 피로움도 많았고 기쁜 일 가슴벅찬 일도 많았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앞에 놓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체내에 지닌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시정하는 데서 발전과 공동복지가 초래 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문제의 책임을 삼자에게 내걸기 전에 나 자신을 평가하는 지혜로운 일은 앞으로 명실공히 향상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제는 마련된 회관(장소)에서 마련된 여러 조직체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준비된 꼴로 안다. 앞으로는 벽관 소망을 가지고 창위의 70년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달려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